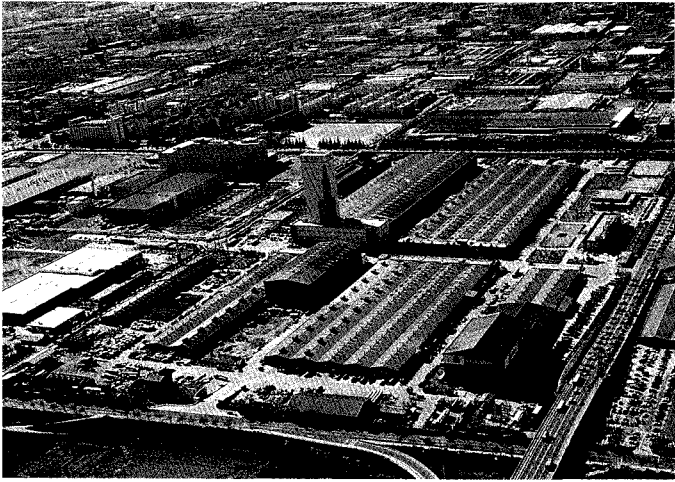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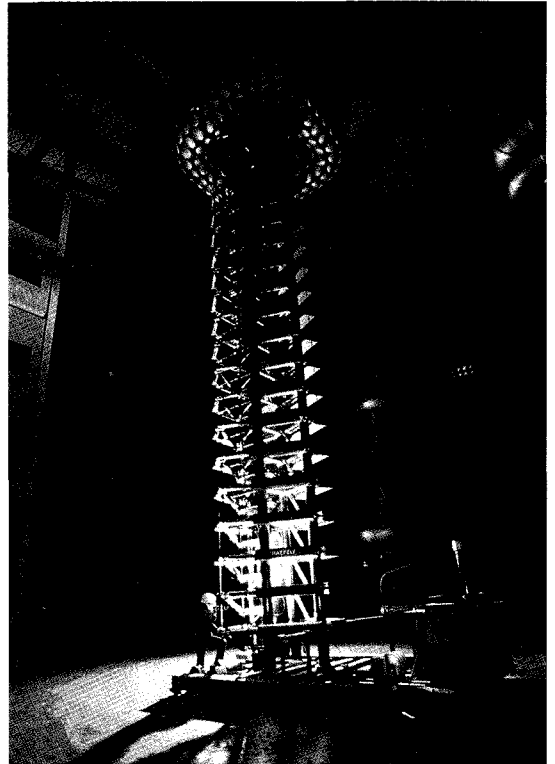
LG전선(주)



구미 공장



안양 공장



무제한 송전에 도전하는 전력연구소

국내 최대 전선제조 및 시스템공사 업체



代表理事 權 焯 久

- 금성사 입사(66)
- 금성전선 이사(82)
- 금성전선 상무(85)
- 기초실 전무(87)
- 기초실 부사장(89)
- 금성전선 부사장(94)
- LG전선 대표이사 사장(95)
- LG전선 대표이사 부회장

우리나라 최대의 전선제조 및 시스템 공사 업체인 LG전선(權焯久 대표이사 부회장은)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국가의 기간시설인 전력망과 통신망 건설을 위해 설립됐다. 1966년에 안양공장에서 절연전선과 알루미늄연선을 생산하면서 우리나라 전선산업의 장을 열었고 1977년에는 구미공단에 통신케이블과 초고압케이블을 생산하는 세계적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면서 종합 전선회사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 1982년에는 안양에 기술연구소를 건립하고 전선관련 분야의 연구와 기술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네트워크시스템, CATV시스템 같은 컴퓨터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비롯해 커넥터와 리드프레임, 산업용고무와 알루미늄 등 비전선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전선 사업에서 축적된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는 안양, 구미 등 4개 공장과 3개의 연구소 외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해외 합작공장 4개와 8개의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전선 업계 세계 10위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압 케이블 분야 세계 5위…… 기초산업소재 전문공급회사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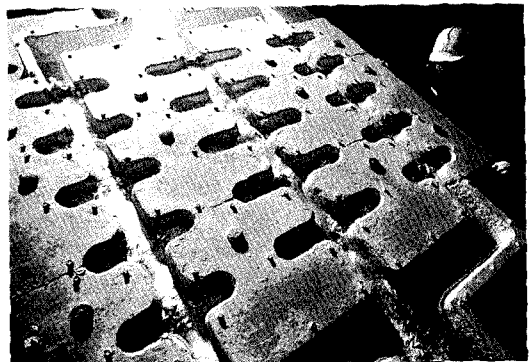
산업의 고도화와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은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빠른 정보의 네트워크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LG전선은 초고속 정보통신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 품질의 광케이블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고압케이블의 설계와 생산, 공사능력은 세계 5위권의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전선 분야인 전기·전자부품 및 산업용 고무, 알루미늄은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어 LG전선은 다양한 기초 산업소재 분야의 전문 공급 회사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몇년 전부터는 남북한 통일 시대를 대비해 착실한 준비를 해오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으로는 보기 드물게 업계에서 세계 정상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천년 세계 10대 전선 메이커 목표, 지속적인 세계진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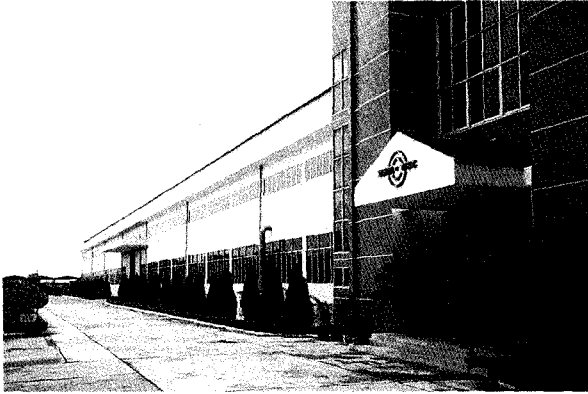
2000년 세계 10대 전선 메이커를 목표로 하고 있는 LG전선은 비전선 부문으로의 사업 다각화와 함께 세계 현지화를 목표 달성의 양대 축으로 삼고 지속적인 세계 진출을 추진해 왔다. '93년, 말레이시아 페낭 공업단지에 전자기기선과 마그네트와이어를 생산하는 합작공장 LGM과 LGE 2개를 설립하고 '95년에는 우전국과 공동으로 베트남 首都 하노이에 광케이블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이어 '97년에는 베트남 북부의 항구도시 하이퐁에 전력케이블 생산공장 VINA-LG CABLE을 준공함으로써 베트남의 전력망과 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자국내 최대의 전선 업체로 발돋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LG전선은 동반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프로젝트 진출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현재 이스라엘과 스리랑카, 태국 등지에서 전



초고압케이블 제조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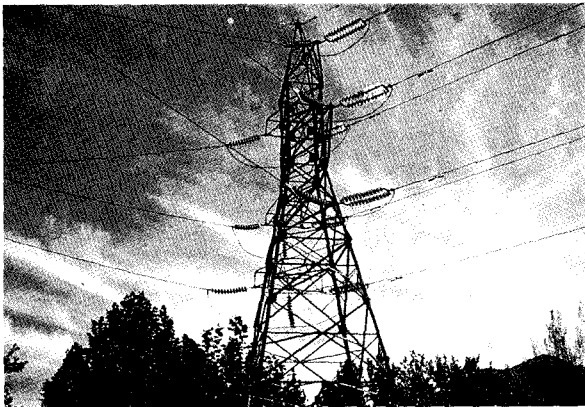
산업용 알루미늄 생산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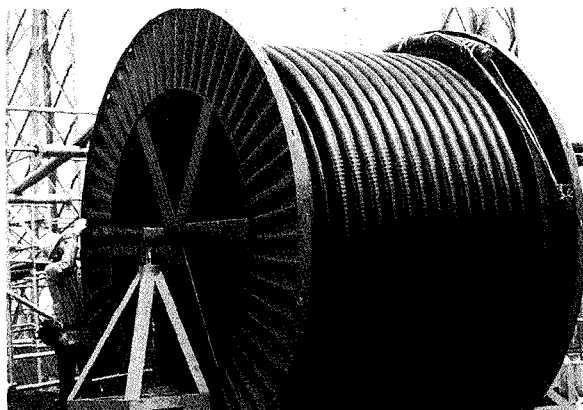
베트남 합작법인 VINA-GSC



말레이시아 합작법인 LGE



가공 송전선



지중 초고압 케이블

력망과 통신망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IMF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등 갑작스럽게 맞이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작년 말에는 최고경영자를 단장으로 하는 해외사업단을 조직, 해외 사업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고 해외 사업에 주력해 작년에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경상이익을 실현했다.

사업분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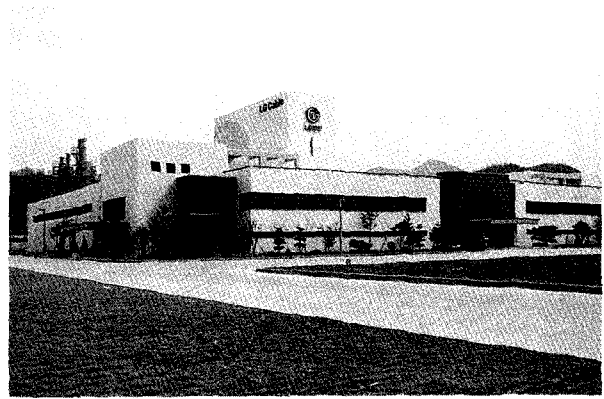
전력 사업

LG전선은 345kV 초고압케이블과 접속자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초고압 송전의 지중화시대를 열었다. 이와 함께 1995년에는 765kV 가공송전선과 OPGW, 송전선로 감시시스템을 상용화함으로써 설계에서 시공까지 초고압 송전시스템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독성 난연케이블,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같은 특수 케이블에서 버스덕트, 히팅시스템의 전력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빛과 에너지의 수송로인 각종 전력케이블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 특히 안정되고 강력한 전력을 수송하는 에너지 초고속 망 구축에 있어서 LG전선은 탁월한 기술력과 첨단 제조

설비로 그 품질과 안정성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통신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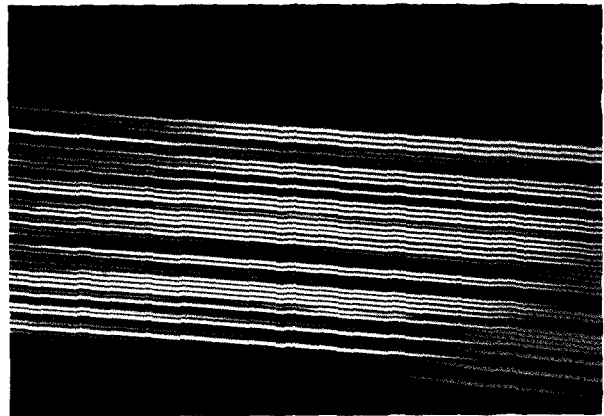
꿈의 통신망으로 통신혁명을 주도한 광통신. 1983년 LG전선이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생산하면서 광통신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 2.5Giga Bit(기가비트) 이상의 대용량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1.55 μ m급 이상의 영분산 광섬유에서 멀티미디어 시대를 개막할 B-ISDN용 광케이블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또 단일 품목으로는 세계 최대의 수출품인 폼스킨케이블과 통신 불감지역을 없앤 누설동축케이블(LCX)도 세계적인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최근 구미 제3공단에 준공한 광통신 종합공장은 연산 120fkm로 세계 최고 수준의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생산하면서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초고속정보통신을 완성시키는 광부품과 광응용 시스템으로 멀티미디어 시대의 통신혁명과 미래 정보화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연산 120만fkm의 최첨단 생산공장

네트워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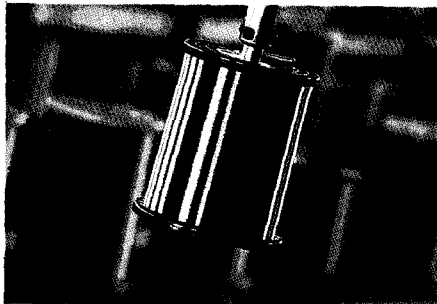
국경을 뛰어 넘고 공간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는 LG전선이 펼쳐가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완성된다. 방송국 설계에서 시스템 운영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CATV시스템은 1988년 서울올림픽 보도방송 지원을 비롯해 서울 목동 시범 방송국, 미8군 CATV시스템 등 가장 많은 공급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무선통신 시스템은 터널과 지하에서도 통신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더욱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 또 네트워크 시스템은 국세청 통합 전산망, 부동산 등기 전산망, 사법부 전산망 등 국가 기관의 네트워크를 비롯해 대학, 병원 등에 단위 장비에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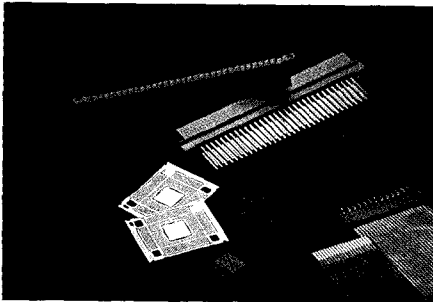
광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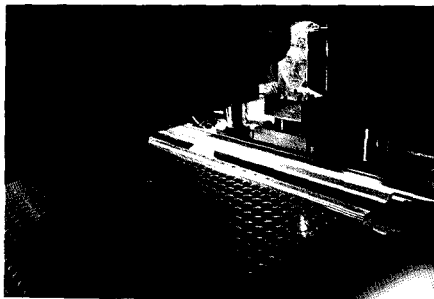
무선통신 시스템



마그네트 와이어



기기선, 커넥터, 리드프레임



중보행용 고무타일 제조라인



베트남 합작법인 LG-VINA Cable 준공식

부품 사업

LG전선은 전기·전자기기는 물론 산업용 기기, 자동차 항공기 등 모든 기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혈관인 기기선과 마그네트 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고순도 무산소 동케이블과 카드 케이블, 초박형 도체를 개발하는 등 제품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ABS용 센서케이블, 브레이크용 튜브 등을 개발하면서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를 높이는데 큰 몫을 해왔다. 난연 무독성 열수축 튜브도 선보여 범세계적인 환경보호 추세에 부응하고 있으며 마그네트 와이어는 기존 구리 대신 알루미늄을 도체로 사용한 제품도 개발, 최종 제품의 소형 경량화와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한편 최근 급격하게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 통신기기의 경박단소화는 커넥터의 소형화가 필수적인데 LG전선은 1.0mm, 0.5mm피치의 커넥터를 개발, 초소형 커넥터의 개발을 주도했으며 64MD램용 LOC타입 리드프레임은 한국 반도체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 소재

건물의 바닥에서 자동차, 선박, 지하철에도 LG전선의 오랜 고무 제조기술이 숨어 있다. 선박용 고무전선, 원자력발전소용 CLASSIE 케이블 등을 통해 축적한 컴파운드와 고무 가공기술로 1992년부터 철도 궤도용 방진고무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공항, 학교 등 대형 건물에 사용되는 특수 고무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고무타일 바닥 장식재는 불에 잘 타지 않고 미끄럽지 않으며 디자인이 뛰어나 지하철역사나 스포츠 센터 같은 대형 건물의 중보행용으로 적합하다. 이와 함께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나 계단이나 장애인 유도 블록으로도 적합해 LG의 경영이념인 '인간존중의 경영'을 제품으로 실현하고 있다.

또 산업의 경박단소 추세에 따라 알루미늄은 전기, 전자, 수송기기,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차세대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LG전선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단조용 합금소재, 자동차용 알루미늄 튜브와 구조재 등 알루미늄 합금 압출제품 개발에도 성공, 소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재를 수입해 사용하던 부품 업체의 원가 부

담과 납기 애프터서비스 등 여러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해외 사업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뛰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현지 최대 전선 업체인 LEADER그룹과 공동으로 LG전선은 기기용 전선과 마그네트와이어 합작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회사는 설립 첫 해인 1993년부터 흑자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LG그룹내에서도 해외 투자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을 정도다. LG전선은 또 지난 '93년, 하노이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Back bone 라인 구축을 계기로 '95년도에 수도 하노이에 연산 10만fkm의 광케이블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이어 '97년에는 북부 항구도시 하이퐁에 전력케이블 합작공장 VINA-LG CABLE을 준공했는데 이 회사는 베트남 최대의 종합 전선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스리랑카, 태국 등지에서 전력망과 통신망 등 해외 프로젝트 공사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밤을 잊은 LG전선 중앙연구소



연구원

Research & Development

전선 관련 소재에서 첨단 정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LG전선 연구소는 효율적인 정보전달과 에너지 전송을 위해 기술혁명을 꿈꾸는 전문 집단이다. 전선연구소는 전선과 관련된 고분자, 금속, 생산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광선로, 광소자, 시스템 등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광통신연구소. 그리고 초고압 송전시스템과 무제한 송전에 도전하는 전력연구소는 전선의 기초에서 첨단에 이르기까지 전선과 관련 기술을 일구는 텃밭으로 자리잡았다. 이들 LG전선의 연구소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경제의 힘을 키워가고 있다.

회 사 연 혁			
1962	설립	1989	파키스탄에 초고압케이블 턴키 수출
1967	일본 히타치전선과 전력 및 통신케이블 기술제휴	1992	말레이시아 합작공장 설립
1977	구미공장 준공	1993	중국에 통신케이블 제조 기술 수출
1982	기술연구소 준공	1995	베트남 합작 법인 VINA-GSC 준공
1983	TA&T와 금성광통신 설립	1996	이스라엘 초고압 송전망 공사 수주
1983	한국중공업 군포공장 인수	1997	베트남 합작법인 LG VINA Cable 준공